

# 당산숲 구성요소인 돌탑의 기원 유래 고찰

- 안동 서지리 성황당 돌탑을 중심으로 -

최재웅\* · 김동엽\*\* · 권진량\*\*\*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 \*\*성균관대학교 조경학과 · \*\*\*안동시 향토사학자

## Study on the Origin of Stone Tower as a Component of Dangsang Forest

- Focus on Village Shrine at Seoji-ri, Andong -

Choi, Jai-Ung\* · Kim, Dong-Yeob\*\* · Kwon, Jin-Ryang\*\*\*

\*National Academy of Agricultural Science,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Sungkyunkwan University

\*\*\*Andong, Student of Local History

### 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understand the origin and characteristics of stone tower's style through the study of the 'Village Shrine at Seoji-ri, Andong'. The three kinds of stone towers were located forming a line of 9m on the hill of a red pine forest along the stream in the village. Toward the direction looking at the village, the three-story stone located on left, the two-story stone located in the middle, and the common style stone tower located on right. The bottom part of the three-story stone was 2.5m in length, 1.8m in width, 1.3m in height. The bottom part of the two-story stone was 1.3m in length, 1.5m in width, 0.9m in height. The common style stone heap tower was 3.0m in diameter, 1.8m in height with a cone shape. The small hat-shaped stone was presumed to be the top part of a three-story stone. According to the three factors(heaven, earth, human) of the idea of the universe in Korea, most ancient remains have components of odd numbers. Then it had been substituted with smaller three-story stone(at present, two-story stone). And then altered to a common stone tower later, such as the 'Village Shrine at Seoji-ri, Andong' that shows the combination of the Bronze Age's megalithic and a folk religion. The 'Village Shrine at Seoji-ri, Andong' is a valuable relic that shows the stone towers, and is derived from the Bronze Age. The 'Village Shrine at Seoji-ri, Andong' shows that the 'Village Shrine at Seoji-ri, Andong' was embodied the three-factor(heaven, earth, human) idea of the universe in three-story stone of megalithic culture' remains.

*Key Words : Dangsang Forest, Three-Story Stone, Three Factors(Heaven, Earth, Human) Idea of the Universe, Stone Tower, Megalithic Culture*

### 국문초록

본 논문의 목적은 삼첩석, 이첩석 및 돌탑으로 이루어져 있는 '안동 서지리 성황당'을 사례로 하여 당산숲의 구성요소인 돌탑의 조형 양식에 대한 유래와 특징을 고찰한 것이다. 세개의 돌탑은 옛당산숲으로 보이는 마을 안쪽의 개천변 소나무 동산 정상에 있다. 세 돌은 일직선상으로 9m 거리에 걸쳐 위치하고 있으며 마을을 바라보며 왼쪽에 삼첩석, 가운데에 이첩석, 오른쪽에 돌탑이 있다. 삼첩석의 제일 아래 쪽은 길이 2.5m, 폭 1.8m, 높이 1.3m이고,

본 연구는 2010년 한국전통조경학회 춘계학술대회를 통해 발표한 논문을 토대로 발전 보완한 논문임.

† Corresponding Author : Choi, Jai-Ung, National Academy of Agricultural Science, RDA, Suwon-si, Gyeonggi-do 441-857, Korea. Phone : +82-31-290-0284, E-mail : juchoi0530@korea.kr

이첩석의 아래 자연석은 길이 1.3m, 폭 1.5m, 높이 0.9m이다. 돌탑은 지름 3m의 원추형에 높이 1.8m로서 작은 돌을 쌓은 것인데, 일명 ‘모관석’은 현재 이첩석의 맨 위에 있던 것이 떨어져 나간 것으로서, 현재의 이첩석은 원래 삼첩석이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그 까닭은 우리나라 고대 조형 방식의 원리인 삼재사상(三才思想)에 비추어 볼 때, 짝수로 이루어진 조형물은 예를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안동 서지리 성황당’이 청동기시대의 거석문화와 후대의 민간신앙이 이어져 오는 과정을 보여 주는 예가 되는 것과 같이, 시기적으로 볼 때 돌탑은 청동기시대의 거대석인 왼쪽의 삼첩석을 기원으로 하고, 가운데에 위치한 좀 더 작은 크기의 삼첩석(현재는 이첩석)을 거쳐, 후대에 오른쪽에 있는 작은 크기의 보통 돌탑으로 그 조형 양식이 변화되어온 것으로 추정된다. ‘안동 서지리 성황당’은 돌탑의 기원이 청동기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귀중한 유적이라고 할 수 있다.

주제어 : 당산숲, 삼첩석, 삼재사상, 돌탑, 거석문화

## I. 서론

당산숲·비보숲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전통 문화경관으로서, 수백 년 전 마을주민들에 의해 조성된 후, 현재까지 마을주민들에 의해 보전·관리되고 있는 국가적 문화자산이다. 돌탑은 당산숲의 3대 구성요소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안동 서지리 성황당’을 발굴하여 문화재로 지정한 문화재청(1993)은 이곳을 「유적건조물/종교신앙/제사유적/성황당」으로 분류하였으며, “성황당은 마을의 수호신을 모셔 놓은 곳으로, 주로 돌무더기와 나무로 되어 있으며, ‘서낭당’이라고도 한다. 서지리 마을은 나즈막한 야산 숲속에 3개의 커다란 돌을 쌓은 삼첩석, 2개의 돌로 구성된 이첩석, 자연석 위에 모자형의 돌을 얹은 모관석, 작은 돌로 높이 쌓은 돌무더기 등이 있어 마을의 안녕과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공동체신이 있는 성스러운 곳으로 여겨지고 있다. 삼첩석과 이첩석은 청동기시대(에 만들어진 거석문화) 유적으로 추정되는데, 후에 풍수지리적으로 마을의 허한 곳을 보완해 주는 기능이 추가되었다. 돌무더기에서는 최근까지도 매년 정월 보름 자시(밤 11~1시)에 유교식으로 마을제가 행하여지기도 하였다. 지금까지 그 형태가 잘 보존되어 있는 유적들로 선사시대의 문화와 후대의 민간신앙이 이어져 오는 과정을 보여 주는 중요한 예가 된다”고 평가하였다. 본 연구는 삼첩석, 이첩석을 청동기시대 유적으로 추정한 문화재청의 평가를 기본적으로 인정한 바탕위에서 수행한 것이다. 그러나, ‘안동 서지리 성황당’에 대한 문화재청의 해석은 청동기시대 유적인 삼첩석, 이첩석에 치우쳐 있으며, 그 후에 조성된 보통 돌탑에 대해서는 돌무더기로 표현함으로써, 돌탑의 의미와 그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그 이외에 명료하지 못하고 모호하게 서술한 부분이 있다.

삼첩석과 이첩석은 거석문화 유적으로서, 돌탑이 이것들과 같은 장소에 조성되어 있다는 것은 거석문화 유적과 돌탑이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안동 서지리 성황당’에서 당산숲의 구성요소 중 하나인 돌탑의 조형 양

식에 대한 유래를 추정해 볼 수 있다. 즉, 삼첩석, 이첩석 및 보통 돌탑의 세 종류 돌탑으로 이루어진 ‘안동 서지리 성황당’은 돌탑의 기원과 변화 과정을 유추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유적지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지금은 흔하게 볼 수 없지만, 우리나라 고대(古代) 조형 방식의 원리로 알려진 삼재사상(三才思想)에 따른 조형물이 거석문화 유적인 삼첩석을 통해 구체화되어 표현되고 있는 사례지로 볼 수 있다.

본 논문의 목적으로 삼첩석, 이첩석 및 보통 돌탑으로 이루어져 있는 ‘안동 서지리 성황당’을 사례로 당산숲의 구성요소인 돌탑의 조형 양식에 대한 특징을 고찰함으로써, 돌탑 및 당산숲 조성의 시발점이 과연 어느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지 고찰하고자 한다.

## II. 연구사

그동안 당산숲·비보숲의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연구와 노력이 조경학, 지리학, 임학, 생태학, 민속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계속되어 왔는데(류계현, 1980; 김덕현, 1986; 김학범, 1991; 이원열 등, 1992; 김학범과 장동수, 1993; 장동수와 이규목, 1997; 윤영환 등, 1998; 박재철, 1998; 김정태 등, 1999; 최재웅과 김동엽, 2000; 남연화 등, 2002; 최원석, 2004; 강현경 등, 2004; 이상훈, 2005; 신상섭 등, 2008), 본 논문의 주제인 돌탑에 대해서는 민속학 분야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연구한 것으로 보인다. 이상훈(2003)은 ‘진안지방의 탑신앙’ 연구를 통해 전라북도 진안지역 돌탑의 명칭, 형태와 구성요소, 축조이유, 신앙의례 등에 대해 고찰하였다. 민속학 분야에서는 돌탑을 마을공동체의 의식의 대상으로만 파악하고, 돌탑이 지니는 공간적 입지에 대해서는 별로 주목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비보풍수적 관점에서 파악하고자 하였다. 진안지역의 돌탑은 71개 마을에 있었으나, 현재는 39개 마을에 61개의 돌탑이 남아 있고, 진안지역에서는 돌탑을 일반적으로 탑, 돌탑, 조탑, 조산(造山) 등의 명칭으로 부르며, 그 형태는 주로 누석형, 원통형, 원추형이라고 보

고하였다. 오준근(1998)은 '장수지방 민속문화' 연구를 통해 장수지방 당산제의 형태와 제의(祭儀)를 고찰하였는데, 돌탑을 조탑으로 표현하였으며, 장수군 일원의 당산제는 조탑제라는 이중구조를 지닌다고 보고하였다. 특히, 국립민속박물관(2007)에서는 '한국의 마을신앙 현장조사 보고서(상·하)'를 발간하였다. 이 책은 전국 150여 명 민속학자들의 인적 네트워크를 동원하여 2005년 정월대보름(2005. 2. 22~2. 23)에 동시에 거행된 전국의 마을제사를 조사한 139개 '마을 현장보고서' 및 2006년에 문헌조사·전화조사·현지조사 등의 방법으로 파악한 전국 12,000여 개 마을의 '마을신앙 현황표'로 이루어져 있는데, 조사를 담당한 민속학 연구자들의 예상보다 많은 마을에서 마을신앙이 활발하게 전승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 책은 민속학자들뿐만 아니라, 전통마을숲인 당산숲·비보숲을 연구하는 조경학 연구자들에게도 매우 가치있는 기본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현장보고서를 보면, '충북 보은군 내북면 화전2리 탑제' 등 돌탑과 관련한 당산제가 많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돌탑은 당산숲의 3대 구성요소 중 하나로 알려져 있는데, 당산나무와 그 주변의 수목, 숲 안의 인공 시설물인 당집 [성황당], 돌탑 등 세 가지가 당산숲의 3대 구성요소로서, 당산숲 내에는 이 중 한 가지 이상이 존재하게 된다(최재웅과 김동엽, 2000; 2003; 최재웅, 2009). 당산제를 지낼 때 3대 구성요소에는 모두 신성한 대상임을 나타내는 금줄을 치게 된다. 당산숲은 마을주민들이 당산제를 지내는 숲이며, 토속신이 살아 있는 마을의 성역으로서, 대부분 음력 정월대보름 저녁에 당산나무, 당집, 돌탑 앞에서 거행되는 당산제는 일종의 물활론(物活論, animism)적인 전통생활문화이다(최재웅과 김동엽, 2005). 문화재청에서는 2003년부터 「마을숲 문화재 자원조사」 사업을 시행하면서 당산숲, 비보숲, 정자숲 등 6종류로 분류하고, 보전가치가 큰 숲을 천연기념물로 지정해 오고 있다.

한편, 본 논문의 큰 줄거리인 '고대 전통 조경문화' 관련 연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민경현(1998; 1989)은 "우리 한민족은 자연의 힘에 순응하면서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켜 왔는데, 사상적으로는 4,300여 년 전 天·地·人의 삼재사상과 고대문화의 원류인 천부경(天符經)을 중심으로 우리 문화의 기틀인 부등변삼재(不等邊三才)의 공간이 완성되었으며, 거석문화를 주축으로 한 들[苑]과 뜰[庭]의 자연스런 문화로 정착되었다. 제단석, 선돌, 고인돌은 우리나라 초기의 대표적인 거석문화로 그 꾸밈새에서 '천, 지, 인'과 음양의 섭리를 응용하여 제각기 다른 세 가지 수석기법을 쓰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이들은 모두 신앙을 목적으로 꾸민 원시적인 들[공원]의 중심경물임을 알 수 있다"고 고찰하였다.

김학범(1991)은 마을숲은 마을사람들의 다양한 사회적 활동을 담은 마을 공용의 녹지로 마을문화가 오랜 세월이 걸쳐 집적되어온 상징적 대상물로서 마을숲 내에는 마을문화를 상징하는 다양한 장식물들이 갖추어져 있는 사례가 많으며, 공원 녹

지의 한국적 원형이라고 하였다. 김영모와 진상철(2002)은 조경사 연구에 있어서 근세사 즉 조선시대에 치우친 지금까지의 연구 풍토를 지양하고 조경사 연구의 출발점을 고대시대로부터 새롭게 정비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시하였으며, 삼국시대인 고구려, 백제, 신라에서의 신선사상이 조경문화에 끼친 영향을 논하였다. 신선사상이 조경문화에 영향을 미친 가장 직접적인 양상의 하나는 삼국사기의 기록이나 안압지, 궁남지의 발굴결과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원림내에 선계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연출·연못을 파고 조산을 쌓아 선도를 상징하고 선계에는 각종 기화이초와 진귀한 동물들이 있는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전통조경 유형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 수많은 별서와 누대, 곡수거 등의 시원이 삼국시대 인물인 최치원의 행적과 유적에 많은 관련이 있음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안계복(2005)은 한국의 전통공간에서 자연을 더 깊이 있게 즐기기 위해 여가공간은 루·정·대가 자연가운데 적당한 위치에 자리하며, 자연과 주거공간 사이의 신앙공간에는 장승, 솟대, 성황당 등이 놓여지고, 그 곳이 마을의 안녕과 풍요를 비는 성역화된 공동체 신앙공간임을 고찰하였다. 신상섭(2004)은 숲 띠와 마을숲(방풍림, 비보숲, 당산목, 상징수목) 등의 물리적 조건과 당산제 등의 공동체문화가 환경의 지속성에 기여한다고 논하였다.

또한, 노재현 등(2010)과 고여빈 등(2010)의 수석(樹石) 및 삼존석 등에 관한 일련의 연구는 삼재사상과 관련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삼재미(三才美)란 동양에서 일찍이 우주를 하나의 완전한 미로 보고, 그것을 다시 하늘과 땅과 인간의 3형태로 나누는데, 이것이 만물을 제재하는 것으로서, 이 세 가지는 3극을 이루어 함께 존립할 때 극치를 이룬다(윤평섭, 1998; 고여빈 등, 2010에서 재인용). 안동시 향토사학자 권진량(2003)은 '세월속에 묻힌 순간의 추억들'이라는 저서를 통해 본 논문의 조사대상지인 서간리 약사(西澗里 略史)를 고찰하였다.

### Ⅲ. 연구내용 및 방법

#### 1. 조사대상지

조사대상인 '안동 서지리 성황당'은 경상북도 안동시 와룡면 서지리 서간마을에 있다. 서간마을은 안동시내에서 35번 국도를 따라 북쪽의 도산서원 방향으로 5.5km 지점에 있다. 청동기 시대의 유적인 삼첩석과 이첩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오랜 옛날부터 사람이 살아 왔을 것으로 추측되나 기록으로는 약 700년 전 쯤에 전리판서인 남휘주가 터를 잡아 살아온 것으로 되어 있다. 지금은 쇠약한 마을이 되어 불과 15호에 지나지 않으나, 한 때는 마을 안에 12 성씨가 살고 모두 기와집에 부자마을이어서 거지들이 굶이지 않았다고 전해진다(권진량, 2003). 마을 주변에 오래된 작은 고분들이 많았으나 지금은 대부분 사라졌



그림 1. 조사대상지(서지리 서간마을) 위치도

으며, 지금 논, 밭으로 되어 있는 곳도 파 보면 대부분 기와 파편들이 묻혀 있다.

##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2005년 경 ‘안동 서지리 성황당’에 대한 현지답사와 주민면담을 통해 그 첫걸음을 내딛었다. 연구 수행을 위해 문헌 및 인터뷰를 통해 ‘안동 서지리 성황당’인 세 종류 돌탑의 특성을 파악하여 당산숲의 구성요소인 돌탑의 역사, 유래를 고찰하고자 하였다. 이는 돌탑을 품고 있는 당산숲 조성의 시발점이 과연 어느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지 고찰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2010년 3월 현지답사를 통해 세 종류 돌탑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돌탑의 크기를 실측하고 상호 관련성을 고찰하였다. 세 종류 돌탑의 내력에 대한 고증을 구하기 위해 향토사학자인 권진량 등 마을주민에 대한 면담을 실시하였다. 마을이장 등 주민과의 면담을 통해 이전에 지내던 당산제 모습에 대한 고증을 구하고, 중단된 현재 상황 및 앞으로의 희망사항 등을 파악하였다. 조사 대상에 대한 개황은 ‘안동 서지리 성황당’ 관련 문화재청 자료를 참조하였으며, 조사한 마을내 현황도는 1/5,000 지형도에 표시하였다.

## IV. 결과 및 고찰

### 1. 당산숲의 구성요소인 돌탑 고찰

#### 1) 당산숲의 3대 구성요소와 구성요소별 내부 모습

당산나무와 그 주변의 수목, 숲내 인공 시설물인 당집(성황당), 돌탑 등 세 가지가 당산숲의 3대 구성요소이다. 당산숲의 3대 구성요소와 관련하여 당산숲은 영암군 호포리 문수마을과



그림 2. 당산숲의 3대 구성요소별 내부 모습

(자료: 필자 촬영)

같이 돌탑, 성황당이 없으면서 당산나무 및 수목만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그림 2a), 원주시 성남리와 같이 돌탑이 없으면서 당산나무와 당집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그림 2b). 돌탑이 있는 경우는 장수군 송천리와 같이 당집이 없으면서 당산나무와 돌탑이 있는 경우(그림 2c)와, 강릉시 구정리와 같이 세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는 경우에 찾아볼 수 있다(그림 2d). 당산나무 및 수목을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으면서, 두 개의 시설물 즉, 돌탑과 당집 중의 하나가 같이 있는 형태가 가장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당산숲의 모습으로 파악된다(최재웅과 김동엽, 2007).

#### 2) 돌탑의 여러 모습

돌탑은 자연석을 원추형으로 쌓아 올린 것으로서, 강릉시 구정리 당산숲의 돌탑은 균형이 잡히고 아름다워 대표적인 돌탑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 돌탑과 연결되어 있다(그림 2d 참조). 그림 3a는 「조선미술사」(1929)의 저자 안드레 에카르트(Andre Eckardt, 1884~1971)가 찍은 1920년대 돌탑의 모습이고(인터넷 서울신문 참조), 강릉시 왕산면 도마1리 도마마을의 아름다웠던 돌탑(그림 3b)은 2002~2003년의 태풍 매미, 루사 때 불어난 하천물에 휩쓸려 완전히 소실되어 지금은 볼 수 없다. 이 정도의 돌탑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돌 쌓기 장인의 노력이 필요한데, 도마마을 주민들로서는 다시 복구할 엄두를 내지 못하다가 결국 돌탑과 함께 당산제도 소멸되고 말았다. 그림 3c는 의성군 단촌면 새적골 마을로 돌탑이 오랜 세월로 인해 많이 무너지고, 허물어진 상태 그대로 보전하면서 당산제를 지내는 모습이다. 그림 3d는 전남 완도 일대의 당산숲을 답사하던 2009년에 촬영한 것으로서, 완도군 생일면(생일도) 유촌리 부근의 해안가에 있는 돌탑인데, 본 논문의 조사대상지인 안동 서지리 성황당과 같이 3개의 큰 자연석을 쌓아 올린 삼첩석으로 되어



그림 3. 돌탑의 여러 사례  
(자료 a: 조선어교재문헌, b~d: 현지 촬영)

있으며 크기도 비슷하였다. 해안가 마을인 유촌리는 마을 위에 작은 당산숲이 있는 마을로서 이 삼첩석은 유촌리 당산제와 상관이 없고 해안도로를 개설할 때 근처의 것을 옮겨다 놓은 것으로 추정된다. 유촌리 해안가에 서너 개 조성되어 있는 이 삼첩석에 대해 고증된 사실은 없으나, 안동 서지리 성황당과 같이, 고고학적인 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2. '안동 서지리 성황당'의 입지 및 형태적 특성

#### 1) '안동 서지리 성황당'의 입지

서지리 성황당의 세 종류의 돌탑들은 마을 안쪽 개천 변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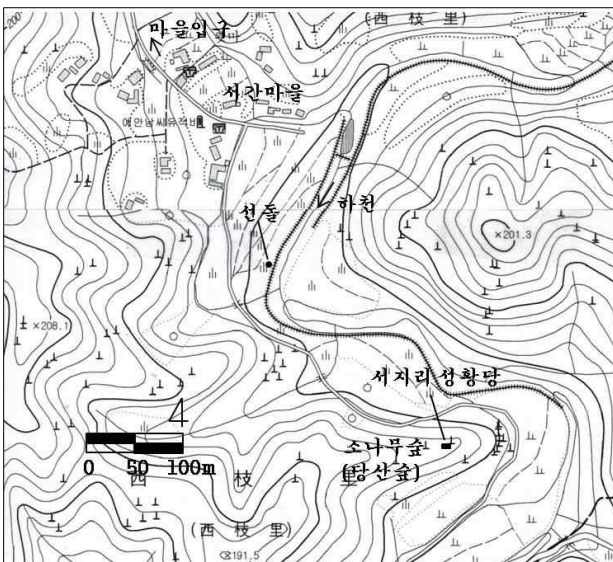


그림 4. '안동 서지리 성황당'(돌탑) 입지도



그림 5. '안동 서지리 성황당' 구성요소  
(자료: 필자 촬영)

있는 작은 소나무숲 동산(옛 당산숲) 정상에 있으며, 일직선 상으로 9m 길이에 위치하고 있다(그림 4). 마을을 바라보며 왼쪽에 삼첩석, 가운데에 이첩석, 오른쪽에 보통 돌탑이 있다(그림 5a). 옛 당산숲인 지금의 소나무숲은 일반적인 당산숲의 모습과는 약간 차이가 있는데, 현존식생은 자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당산숲에 흔히 있는 당산나무 등 고목은 없고, 최대 흉고 직경이 40cm 정도인 것을 비롯하여 약 25cm 내외의 흉고직경을 가진 소나무들로 이루어져 있다.

#### 2) '안동 서지리 성황당'의 형태적 특성

##### (1) 3첩석

삼첩석의 제일 아래인 1단의 자연석은 길이 2.5m, 폭 1.8m, 높이 1.3m이다. 그 위에 길이 1.8m, 폭 1.6m, 높이 1.1m의 2단석이 포개져 있고, 그 위에 길이 1.2m, 폭 1.1m, 높이 0.5m의 3단석이 놓여 있다(표 1 참조). 1단석 앞의 작은 암석은 1단석에서 떨어져 나간 것이다. 1단은 자연석이며, 2단과 3단은 자연석의 밑면을 평평하게 자른 후 얹어 놓은 것으로 보인다(그림 5b).

##### (2) 2첩석

이첩석의 제일 아래인 1단의 자연석은 길이 1.5m, 폭 1.4m, 높이 0.9m이다. 그 위에 길이 0.9m, 폭 0.7m, 높이 0.7m의 2단석이 놓여 있다(표 1). 1단석 앞의 작은 암석은 1단석에서 떨어져 나간 것으로 추정된다(그림 5c 참조). 3첩석과 마찬가지로, 1단은 자연석이며 2단은 자연석의 밑면을 평평하게 자른 후 1단 위에 올려놓은 것으로 보인다. 문화재청 자료는 그림 5c에서 2첩석 왼쪽에 보이는 동그라미 표시 부분의 작은 암석을 '자연석 위에 모자형의 돌을 얹은 모관석'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 (3) 보통 돌탑

돌탑은 지름 3m의 원추형에 높이 1.8m로서 작은 돌을 쌓은 것이다(그림 5d).

표 1. '안동 서지리 성황당'(돌탑)의 형태적 특성

\*단위: m

명칭	종목	구성요소	돌의 크기* (가로×세로×높이)	배열 형태
'안동 서지리 성황당'	경상북도 민속자료 제100호	3첩석	1단석: 2.5×1.8×1.3	일직선 상 9m 길이에 위치
			2단석: 1.8×1.6×1.1	
			3단석: 1.2×1.1×0.5	
		2첩석	1단석: 1.5×1.4×0.9	
			2단석: 0.9×0.7×0.7	
		보통 돌탑	지름 3×높이 1.8(원추형)	



그림 6. 선돌 및 하천가 큰 돌  
(자료: 필자 촬영)

(4) 기타(선돌)

높이 2m에 밑면 폭, 두께가 1.1×0.6m인 선돌(立石)이 냇가 논둑에 있다. 이 선돌은 마을의 복을 비는 의미가 있다. 주변에 수목은 없으나 전통마을숲의 관점에서 보면, '안동 서지리 성황당'이 있는 소나무숲이 당산숲에 해당하고, 선돌이 비보숲의 의미를 갖는다. 마을 아래 끝집과 선돌, 성황당이 거의 일직선상에 위치한다(그림 4, 그림 6a 참조). 3첩석, 2첩석 및 선돌의 재료가 되는 큰 암석들은 하천가(그림 6b)와 소나무숲 지면에서 볼 수 있다.

3. 돌탑의 유래 고찰

문화재청은 삼첩석, 이첩석을 청동기시대에 만들어진 거석 문화 유적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한국 청동기시대의 연대 설정에는 정설이 없고, 대체로 B. C. 10세기 무렵에 시작되어 B. C. 4세기 무렵까지 계속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청동기시대의 취락은 강변에 있는 구릉이나 작은 하천평야를 앞에 둔 구릉에 자리 잡고 있는데, 서지리 성황당 및 마을의 입지는 그림 1 및 4와 같다. 서지리 성황당 즉, 세 종류의 돌탑들은 표 1 및 그림 5a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삼첩석이 가장 크며, 이첩석은 그보다 작다. 삼첩석과 이첩석은 사람 혼자서는 옮길 수 없는 거대한 자연석으로 되어 있으나, 그 옆의 보통 돌탑은 한 사람 힘으로 옮길 수 있는 작은 크기의 돌들로 되어 있다. 그런데, 현재의 이첩석은 원래 삼첩석이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일명 '모관석'은 현재 이첩석의 맨 위에 있던 것이 떨어져 나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고대 조형 방식의 원리인 삼재사상에 비추어 볼 때, 홀수로 이루어진 조형물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5c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관석'의 크기는 이첩석 위의 빈 공간

과 조화를 이루며, 전체적으로 균형을 이루고 있다. 돌탑에서는 옛날부터 매년 당산제가 열렸으나 1952년 당산제를 지내는 날 마을에 초상이 나면서부터 당산제가 중단된 채 현재에 이르고 있다.

시기적으로 볼 때 돌탑은 청동기시대의 거대석인 왼쪽의 삼첩석을 기원으로 하고, 가운데에 위치한 좀 더 작은 크기의 삼첩석(현재는 이첩석)을 거쳐, 후대에 오른쪽에 있는 작은 크기의 보통 돌탑으로 그 조형 양식이 변화되어온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표 1 및 그림 5a 참조). 따라서, '안동 서지리 성황당'은 현재에 볼 수 있는 보통 돌탑의 기원이 청동기시대까지 이어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돌탑을 포함한 당산숲의 기원은 한민족의 시작에까지 연결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안동 서지리 성황당'에 대해 "후에 풍수지리적으로 마을의 허한 곳을 보완해 주는 기능이 추가되었으며, 돌무더기에서는 최근까지 마을제사가 행하여졌다"는 문화재청의 서술은 모호한 점이 있다. 마을의 결점을 보완해 주는 역할은 하천변 논둑에 있는 입석이 하는 것이며, 후에 조성된 돌탑과는 거리가 멀다. 전통마을숲의 조성 원리에 따른 조성 형태를 볼 때, 당산숲 이외에 비보 기능이 필요할 때에는 별도로 장소를 달리 하여 비보숲을 조성하는 것이 원칙이다. 당산숲의 역할을 하는 곳에 비보 기능을 위한 시설물이 추가되는 예는 볼 수 없다. 즉, '안동 서지리 성황당'에서 보통 돌탑은 마을의 결점을 보완하는 목적보다는 당산숲으로서 제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더불어, 거석문화 유적인 삼첩석은 삼재사상에 따른 고대 조형 방식의 원리가 구현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사찰의 석탑(stone pagoda)들은 7~9세기 경 건립된 것인데, 정림사지 5층 석탑(630~660년 경 건립) 같은 경우도 있으나, 이 시기의 석탑들이 대부분 감은사지 3층 석탑(682년 건립)과 같이 길쭉, 신성수로 알려진 숫자 3으로 된 3층 석탑이라는 사실은 이러한 삼재사상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문화재청 홈페이지에는 돌탑을 '작은 돌로 높이 쌓은 돌무더기'로 소개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바로 고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돌무더기란 돌을 아무렇게나 집어 던져 포개 놓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돌탑은 그 기원이 되는 삼첩석의 경우 거대한 자연석을 힘겹게 들어 올린 후 균형을 맞추어 올려 놓아야만 세

을 수 있는 것이며, 보통 돌탑의 경우에도 돌 쌓는 장인의 지극한 정성과 기술이 있어야만 무너지지 않고 서 있을 수 있다. 오종근(1998)과 이상훈(2003; 2005)에 의하면 돌탑, 조탑은 기본적으로 기단부, 탑 본체, 탑 윗돌, 내장물 등 4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3b처럼 아름다웠던 돌탑을 돌무더기라고 부르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돌무더기 이상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이러한 돌탑이 무너지고 세워지지 못한다면 그림 3c처럼 돌무더기 모양이 될 수 있다.

## V. 결론

본 논문은 경상북도 민속자료 제100호로서, 삼척석, 이척석 및 돌탑으로 이루어져 있는 '안동 서지리 성황당'을 사례로 하여 돌탑의 기원을 고찰한 것이다. '안동 서지리 성황당'은 현재에 볼 수 있는 보통 돌탑의 기원이 청동기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 이어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안동 서지리 성황당'이 청동기시대의 거석문화와 후대의 민간신앙이 이어져 오는 과정을 보여 주는 중요한 예가 된다는 문화재청의 평가에 덧붙여 조사, 분석한 결과를 종합해 고찰한 결과, 시기적으로 볼 때 돌탑은 청동기시대의 거대석인 왼쪽의 삼척석을 기원으로 하고, 가운데에 위치한 좀 더 작은 크기의 삼척석(현재는 이척석)을 거쳐, 후대에 오른쪽에 있는 작은 크기의 보통 돌탑으로 그 조형 양식이 변화되어온 것으로 추정할 수 있었다. 또한, 거석문화 유적인 삼척석은 삼재사상에 따른 고대 조형 방식의 원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삼재사상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를 통해 돌탑의 기원과의 연관성을 찾을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고대 마애삼존불의 삼재미를 비롯하여 그 밖의 대상에서도 고대 조형방식의 원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인용문헌

- 강현경, 방광자, 이승재, 김학범(2004). 생육환경 분석을 통한 마을숲의 관리방안: 경상도와 강원도의 주요 마을숲을 중심으로. 한국전통조경학회지, 22(2): 63-74.
- 고여빈, 장일영, 노재현(2010). 古代 磨崖三尊佛에서 찾는 三才美의 構成比: 충남 서산 마애삼존불을 대상으로. 한국전통조경학회 춘계학술 논문발표회 논문집, pp.72-80.
- 국립민속박물관(2007). 한국의 마을신앙(상·하). 국립민속박물관 보고서.
- 권진량(2003). 세월 속에 묻힌 순간의 추억들. 안동: 도서출판 성심.
- 김덕현(1986). 전통촌락의 洞藏에 관한 연구: 安東 내앞마을의 開湖松을 중심으로. 지리학논총 제13호: 25-33.
- 김영모, 진상철(2002). 神仙思想에 영향 받은 傳統 造景文化의 展開樣相에 관한 연구: 古代時代의 造景文化를 중심으로. 한국전통조경학회지, 20(3): 78-91.
- 김학범(1991). 한국의 마을원림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학범, 장동수(1993). 古文獻에 나타난 한국마을숲의 始原에 關한 研究. 한국정원학회지, 11(1): 19-40.
- 남연화, 윤영환(2002). 시대적 배경을 통해 본 마을 숲의 변천과 보존: 성남리 성황림 지역을 대상으로. 한국정원학회지, 20(2): 23-32.
- 노재현, 허준, 장일영(2010). 논산 노성산(魯城山)의 입석(立石) 분포와 총석사(叢石寺) 수석(樹石)의 정원적 면모. 문화재, 43(1): 160-188.
- 류제현(1980). 農村景觀의 形態的 研究: 驪州·利川地方을 中心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지리학과 석사학위논문.
- 문화재청(2003). 마을숲 문화재 자원조사 연구보고서: 강원도·경상북도·경상남도 지역. 문화재청 보고서.
- 박재철(1998). 전북 농어촌 지역 마을숲과 해안숲의 비교 고찰. 한국조경학회지, 26(2): 133-142.
- 민경현(1989). 특집 : 韓國庭苑史(1) 先史時代: 들의 發生과 巨石文化의 變遷. 한국전통조경학회지, 2(8): 345-347.
- 민경현(1998). 韓民族의 陰陽과 三才思想이 남긴 不等邊三角의 空間文化. 한국전통조경학회지, 16(3): 95-107.
- 신상섭(2004). 전통정주지의 환경적 건전성과 지속성에 관한 기초연구: 외암마을과 낙안읍성을 중심으로. 한국전통조경학회지, 22(1): 27-38.
- 신상섭, 노재현, 박재철, 허준, 김홍균, 정명철, 유기종(2008). 호남의 아름다운 마을숲. 우석대학교 자원개발 및 환경계획연구소·조경도시디자인학과 보고서.
- 안재복(2005). 풍류의 정원, 樓·亭·臺. 한국전통조경학회지, 23(1): 150-157.
- 오종근(1998). 장수지방 민속문화. 장수: 장수문화원.
- 윤영환, 김학범, 장동수, 김정태(1998). 강원도 동해안지역 정주지 구성요소로서 풍수(風蔭)의 경관과 그 효용에 관한 연구. 한국정원학회지, 16(1): 59-81.
- 이상훈(2003). 진안지방의 탐신앙. 진안: 진안문화원.
- 이상훈(2005). 마을 숲의 사회학적인 의미: 진안 지역을 중심으로. 전통마을숲의 이해와 복원운동의 방향 심포지엄 자료집, pp.23-51.
- 장동수, 이규복(1997). 경주·포항시 전통도시숲(읍수·임수)의 보존과 관리, 활용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정원학회지, 15(1): 1-15.
- 최원석(2004). 한국의 전통적 경관 보완론: 서울대 환경계획연구소편, "한국의 전통생태학". 서울: 사이언스북스, pp.76-103.
- 최재용, 김동엽(2000). 마을숲문화가 있는 농촌 마을숲의 구조 및 보전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정원학회지, 18(3): 51-64.
- 최재용, 김동엽(2003). 농촌 문화경관으로서 강릉시 구정리 마을숲의 경관 특성.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 38(4): 171-181.
- 최재용, 김동엽(2005). 하천경관으로서 당산숲·마을숲의 경관생태학적 기능 고찰. 환경정책연구, 4(2): 31-55.
- 최재용(2009). 농어촌마을의 당산숲 구성요소 및 문화에 관한 고찰. 문화재, 42(1): 188-209.
- 최재용, 김동엽, 김미희, 박광래, 강방훈(2010). 당산숲 구성요소인 돌탑의 유래 사례 고찰. 한국전통조경학회 춘계학술논문발표회 논문집, pp.139-143.
- Eckardt, Andre(1929). Geschichte der koreanischen Kunst. 권영필 역(2003). 에카르트트의 조선미술사. 서울: 열화당.
- <http://www.tourandong.com/>(안동시청-문화관광 홈페이지)
- <http://www.cha.go.kr/>(문화재청 홈페이지)
-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code=&id=20050324025001&keyword=안드레%20에카르트\(인터넷 서울신문-1920년대 조선의 민담·풍습 오롯이\)](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code=&id=20050324025001&keyword=안드레%20에카르트(인터넷 서울신문-1920년대 조선의 민담·풍습 오롯이))

원고접수: 2010년 9월 6일

최종수정본 접수: 2010년 9월 24일

2인 익명 심사필, 1인 영문 abstract 교정필